

병원문을 나가는 두분 어른들의 밝은 미소로 병원 정문까지 환송하고 저는 하늘을 쳐다 봤습니다. 맑은 하늘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물 파랑새에게는 언제나 밝음이 있다는 것이 항상 기쁨 입니다. 도시에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
땃글7

박정원(서울)18.07.31 21:01 선생님 글을 볼때마다 저를 돌아보게도 되고 용기와 자신감도 다시금 생기는것 같습니다^^

손뼉치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마위쪽으로 손을 올리고 치킨하는데요 호흡과 함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.림프운동도 궁금합니다

자세한 설명 및 동영상에 있음 많은 도움이 될거같은데요 어렵겠지요? 박정란(안양)18.07.30 12:22 선생님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.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wjwj2485@naver.com으로 메일주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김현원(서울)18.08.01 07:00 이멜 보냈어요. 박정란(안양)18.08.01 11:30 @김현원(서울)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권 선생님 메일이 현재 휴면 상태라 발송이 안되어 휴면 해제 후 재 발송해야 될듯싶습니다. 이송하(서울)18.07.31 19:09 그간 읽은 중에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김명선2(포항)18.09.20 09:17 항상 감동입니다. 시안의 허준이십니다. 권대희님, 감사합니다. 이 글을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.